

〈時 事〉

책값이 크게 인상될 것 같다.

—종이 품귀에 인쇄비도 뛰어—

책값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다. 이미 지난주까지 몇몇 出版社들이 책값 인상을 서점에 통고 해왔고 지난달 24일 종이값 인상발표와 함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인상폭을 조정하고 있는 눈치이다. 현재 추세로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적어도 10~20%가량은 서서히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있어 싼뜻 발표하기를 꺼리는게 출판사들의 입장인 것 같다.

책값인상의 포문을 처음 연 출판사는 명문 J社이다. 정평있는 세계문학전집(全100卷)이 날권 1천6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56%나 올랐다. 그러나 4년전에 책값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現實化」했을 뿐이라고 출판사들은 말하고 있다. 여기에 가세한 출판사가 신진 P社이다. 學術書籍을 문고판으로 펴내 잡랄한 재미를 본 이 출판사는 이 「시리즈」의 價格을 5백원에서 8백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H社도 12~15%의 인상을 결정, 定價表를 고치고 있다.

이처럼 책값 인상이 붓물 터지듯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은 그간의 原價상승요인 압박이 너무 컸음을 말해준다. 조판비, 인쇄비, 제본비가 지난해 9월에 50%인상을 통고한 이래 계속 오르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빚어진 종이 품귀, 2중가격, 독과점해제, 종이값 인상의 악순환이 결국 책값 인상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미 금년초에 물가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독과점 품목에서 해제된 인쇄용지가 白上紙 23.2%, 중질지 23.6%의 인상으로 낙착되어 버린 것이다. 연쇄적 종이 파동이 결국 가격인상을 가져온 셈이지만 이로써 종이 求得難은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출판업자들은 말한다. 제지 업체는 종이의 수요 급증으로 생산 능력이 달려 절대 공급량이 부족한데다가 가격인상을 앞두고 고급용지의 생산을 감소 시키고 있어 인쇄용지의 유통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도서 제작비에 있어 종이보다 더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판 인쇄 제본비에 드는 비용의 인상도 책값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판비의 경우 활판이 4.6배판 7포인트기준 5천2백50원에서 7천5백원(42.9%)으로 올라 있는 것이다. 한편 인쇄비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활판 모조기준 1천장이 32.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제본비의 경우는 좀 형편이 다르다. 제본비 자체를 올리지 않으면서 노동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일을 거부하거나 표지찍는 값이나 인지 부치는 일등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책값 인상의 압박의 요인들은 곧장 책값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이 출판업자들의 호소할걸 없는 고충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이 생활필수품이 못되기때문에 책값이 오르면 곧 수요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멍어리 냉가슴 앓듯 독자들의 눈치를 살필수 밖에 없는 난처한 처지」라고 출판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안락으로 쉼어아하는 시련을 핑계로 제작을 소홀히 해서 는 않되는 것이 도서출판이다. 그래서 出協은 종이 수급의 근본대책수립을 여러차례 당국에 건의하고 있으며 조판비의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청타機의 보급도 추진중에 있다. 아무튼 출판계의 「딜러머」를 책값 인상이라는 고식책으로 일반독자들에게만 전가시킬수는 없지 않느냐는게 뜻있는 인사들의 의견이고 보면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쉽다.

이러한 出版界의 문제점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고 보면 근간 들먹이고 있는 책값인상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족으로 자료확보에 큰애를 먹고 있는 도서관界에서도 그냥 보고만 넘길수 없는 일이며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